

상순기저부농양의 처치

일반적으로 구륵근의 내측(구강측)에 발생되며 구강내로 순측 전정부위에 종창을 나타낸다. (사진 1) 이 부위의 농양은 구각거근(levator anguli oris)와 상순거근(levator labii superioris) 사이의 공동으로 확산되기도 한다(사진 2).

주로 상악중, 측절치의 치근단 감염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초래되며, 치근단 낭종, 골층에 의한 종창등과 감별을 요한다.

임상소견으로 상순의 부종성 종창이 나타나며 상순전체를 포함할 때 특징적인 trunk-like appearance을 보인다.

비측부와 안와하부까지도 종창이 나타나며, 구강

내로 원인치아의 변색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합병증으로 상순정맥증을 통하여 안면정맥, 안각정맥을 지나 해면동정맥염을 보이기도 하며 심하면 뇌농양까지도 유발하게 된다. 이와같은 정맥들은 혈관내 판막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와같은 역류가 가능하다.

치료방법은 전정부 농양시와 마찬가지로 구강내로 들출된 전정하부에 절개후 배농시킨다. 이와 함께 치수관을 따라 배농시킬 수도 있으며 급성상태가 지난후 근관치료를 하여 치아를 보존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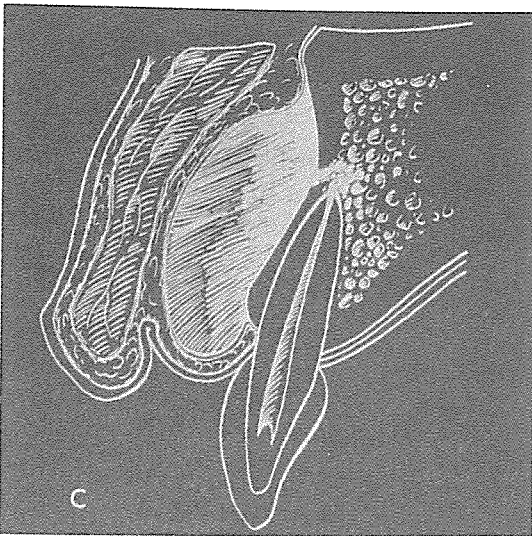


사진 1. 치근단으로부터 구륵근 내측(구강측)의 농양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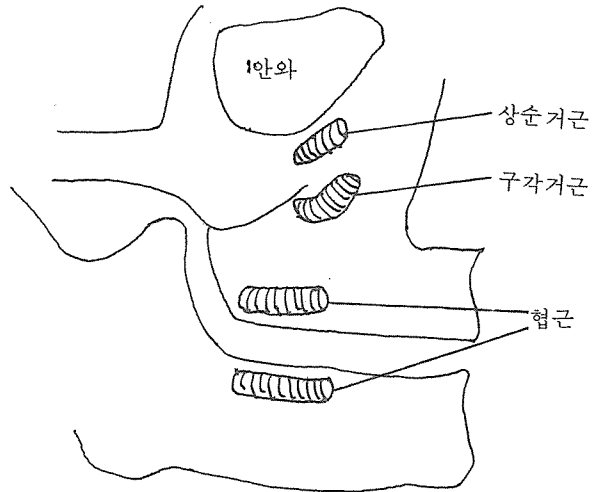


사진 2. 상순기저부 농양이 구각거근과 상순거근 사이로 확산될 수 있다.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6-25(신한빌딩 402호)

☎ 756-2875 · 2876